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5면
세계 최정상 브레이킹 댄서들, 전주에 모인다

14면
전북소방 '전국 소방기술 최정상'

전주매일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음 3월 29일) 제397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첫 날… 등록 마친 도지사 · 교육감 후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4일, 전북지역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자들이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백승재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김관영 무소속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김성수 무소속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 이남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

6·3 지선 후보등록 본격화

도지사 · 교육감 ·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등 후보자들 일제히 등록

후보자들 "민생경제 회복 · 정치개혁 · 전북 대전환" 한목소리… 도민 선택 호소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4일 전북지역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등 출마자들이 일제히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각 후보는 지역 발전과 민생 경제 회복, 정치 개혁, 전북 대전환 등을 내세우며 도민들의 선택을 호소했다.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는 이날 오전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전북의 미래는 고립이 아닌 기회의 길로 가야 한다"며 "당·정·청 원팀 체제를 통한 전북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같은 도지사 선거에 나선 진보당 백승재 후보는 "민주당 독점 정치의 폐해를 바꾸고 도민 중심의 민생정치를 실현하겠다"며 정치 개혁과 서민 중심 정책을 약속했다.

'도민 후보'를 자임하며 무소속으로 도지사 선거에 나선 김관영 후보도 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에서 후보자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후보자 접수를 마치고 "여기서 전북 발전은 멈춰서는 안 된다"며 1호 공약으로 50조 투자 유치와 15개 대기업 유치를 통한 전북 경제 대도약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또 무소속 김성수 후보 역시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임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군산·김제·부안(을) 선거구에 출마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도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임하며 "더 낮은 자세로 주민 속으로 들어가 지역 발전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뛰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조지훈 후보는 후보 등록 직후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 의지를 밝히며 '시민 중심 시정'을 약속했다.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최정호 후보는 "익산의 미래 성장 전략을 시민과 함께 완성하겠다"며 '시민 통합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같은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임형택 후보도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고 본보에 알려왔다.

이학수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도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에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읍시장 후보 등록을 마쳤다.

순창군수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한 최영일 후보도 순창선관위에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접수한 후 "군민 속으로 파고들어 군민들과 함께하는 선거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같은 순창군수 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오은미 후보도 "토목 중심 행정이 아닌 민생 중심 군정을 펼치겠다"며 군민 삶의 변화를 강조했다.

완주군수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유희태 후보도 완주 선관위에 후보자 접수 등록 사실을 알리며 "완주의 위대한 미래 행복한 경제도시로 만들어갈 10대 정책"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갔다.

같은 완주군수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국영석 후보는 "침체된 완주를 혁신과 강한 추진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임하고 있다"며 본보에 후보자 등록 사실을 알려왔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남호 후보와 천호성 후보도 각각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까지 후보 등록 신청을 받은 뒤 오는 21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임실 진구사지 철조여래좌상, 국가 보물된다

통일신라와 고려 잇는 불교문화유산 가치 재조명

임실군의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이 다시 한번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새롭게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4월 30일, 임실군 신평면 중기사에 있는 '임실 진구사지 철조여래좌상(任實 珍丘寺址 鐵造如來坐像)'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정 예고 기간은 오는 5월 29일까지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철조여래좌상'은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 불상 양식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비록 오랜 세월속에서 일부 신체가 결실됐지만 남아있는 조형미만으로도 당시 불교 조각 예술의 높은 수준과 장인의 뛰어난 조형 감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진구사는 7세기경 고구려계 보덕화상의 제자인 적멸(寂滅)과 의융(義融)이 창건한 유서 깊은 사찰이다. 이번 철조여래좌상의 보물 지정 예고를 통해 진구사지가 지닌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가 다시 한번 조명받게 됐다.

특히, 진구사지에는 이미 1963년 '진구사지 석등'이 보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올해 2월에는 '진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보물로 지정됐다.

여기에 이번 철조여래좌상까지 최종 보물로 지정될 경우, 진구사지 관련 유물만 총 3건의 보물을 보유하게 되며 명실상부한 문화유산의 보고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번 성과는 중기사(주지 다현스님)와 임실군이 오랜기간 귀중한 성보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쏟아온 정성어린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군은 지난 2023년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을 통해 철조여래좌상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전용 법당을 건립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해왔다.

특히, 철조 불상의 특성상 상시 부식 위험에 노출돼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보존 환경 개선에 집중하며 국가지정문화유산에 걸맞은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써왔다.
/임실=진홍영 기자

도, 18일부터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시범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형비자(F-2-R) 제도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하고 오는 18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례는 법무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맞춰 지방 인구감소 대응과 산업현장 인력난 완화를 위해 추진되는 제도개선의 일환이다. 특히 내국인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촌·인구감소지역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해 외국인 우수인재 고용 기준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례 대상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정읍·남원·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다. /이만호 기자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